

몽골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4. 3.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9
V. 종합의견	11

I. 일반개황

면적	156만 km ²	G D P	111억 달러 (2013년)
인구	287만 명 (2013년)	1 인 당 GDP	3,880달러 (2013년)
정치체제	민주공화제	통화단위	Tugrik (투그릭)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환율(달러당)	1,521 투그릭 (2013년 평균)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접경하고 있음.
- 몽골은 1921년에 구소련의 지원으로 중국에서 독립하였고 1924년에 공산정권을 수립하여 인민혁명당의 1당 체제 하의 계획경제를 실시하였음. 구소련 붕괴 이후 1992년 민주공화제로 전환하여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석탄 (1,750억 톤, 세계 4위), 구리 5,500만 톤, 세계 2위), 형석 (1,400만 톤, 세계 3위), 우라늄 (6만 톤, 세계14위), 인 (24억 톤, 세계 3위), 텅스텐 (7만 톤, 세계5위), 금 , 철, 아연 등 광물 자원이 풍부함.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t
경제성장률	6.4	17.5	12.3	11.8	11.7
재정수지 / GDP	0.5	-4.8	-11.8	-11.3	-7.3
소비자물가상승률	14.2	9.5	14.2	9.3	8.4

자료: IMF.

□ 외국인 직접투자 축소 및 정부지출 감소로 2014년 11.7%의 경제성장률 시현 전망

- 몽골은 석탄, 구리 등을 중심으로 한 광업이 발달하였음. 광업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지난 3년간 두 자릿수의 높은 경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으나 주요 수출국인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및 구리 가격 하락으로 경제성장률은 점점 하락하는 추세임.
- 2011년에는 중국의 광물 자원 수요 급증으로 구리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광산 개발이 활성화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와 정부지출이 증가하면서 17.5%의 높은 성장률을 달성함.
- 2012년에는 농업 생산량 증가, 광산 개발 지속에도 불구하고 석탄 수출 급감으로 전년보다 낮은 12.3%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음. 2013년 경제성장률은 중국의 석탄 수요 감소, 외국인 투자 위축의 영향으로 11.8%까지 낮아진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대형 광산 개발 완료에 따른 외국인 직접투자 축소 및 정부지출 감소로 경제성장률은 11.7%를 기록할 전망이다.

* 구리 가격의 변동 추이(톤당): 6,963 달러('08) → 5,165 달러('09) → 7,538 달러('10) → 8,823 달러('11) → 7,770 달러('12) → 7,424 달러('13)

□ 주요 광산의 생산량 증가로 2014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축소 전망

- 2011년에는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각종 보조금 및 복지 비용 증가로 정부 지출이 확대되어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4.8%를 기록함.
- 2012년에는 보조금 등 시혜성 지출과 대규모 인프라 사업비 투자로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은 11.8%로 급증함. 2013년에는 주요 광산 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투자 감소와 사회보장비 지출 축소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11.3%로 소폭 하락한 것으로 추정됨.
- 2014년에는 오유틀고이 광산의 구리와 금 생산량 급증에 따른 세수 증가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3%까지 낮아질 전망이다.

□ 정부지출 감소 및 수입물가 하락으로 2014년 물가상승률은 8.4%로 하락 전망

- 몽골은 식료품과 석유제품 등 원자재 수입 비중이 높아 수입가격의 변동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큼. 2012년에는 몽골의 통화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 공무원 임금인상 및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14.2%까지 급등함.
- 2013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유가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하락, 농업 부문의 풍작에 힘입은 식품가격 하락으로 9.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정부지출 및 외국인 직접투자액 감소로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8.4%로 낮아질 전망이다.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광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로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

- 광업이 GDP 20% 이상, 총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국제 광물가격의 변동에 매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

- 특히 주요 수출품목인 구리 가격은 세계경기 변동에 민감하고 변동성이 높아 구리 가격이 급락할 경우 몽골 경제의 심각한 충격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 서브프라임 사태로 2008년 8-9월 구리가격은 8,000 달러 수준에서 3,000 달러 수준으로 급락한 바 있음.
- 석탄의 가격 변동은 구리에 비해 안정적이지만 주요 수입국의 석탄 수요 감소 시 수출에 악영향이 예상됨.

□ 중국 및 러시아에 대한 높은 교역 의존도

- 중국은 몽골의 제1위 교역·투자국으로 몽골 수출액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또한 중국은 몽골의 석탄 수출 시장, 소비재 공급국, 최단거리 항구 제공국으로 기능함에 따라 몽골의 대중국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음.
- 러시아는 몽골의 제2위 교역국이자 제4위 투자국으로, 몽골의 원유 수입액 중 90% 이상을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음. 러시아와 우호적인 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원유를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있으나 관계 악화 시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열악한 수송 인프라가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 활용 저해

- 광활한 국토, 적은 인구 등으로 철도, 도로 등 수송 인프라가 열악하여 풍부한 광물 및 관광자원을 경제개발의 동력으로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몽골정부는 수송 인프라 확충을 위해 동,남부 지역과 주요 광산을 연결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등 외국인 투자자들과 함께 관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나, 숙련 노동자의 부족 및 예산 제약으로 지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생산량의 지속적인 증대

- 2013년 오유틀고이 및 타반톨고이 광산의 개발 사업이 완료되어 구리, 석탄의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오유톨고이 광산 개발 사업은 1990년 이후 몽골 정부의 최대 개발 프로젝트로, 구리 생산량이 점차 증가하여 2018년 기준 연 50만 톤에 달하면서 세계 생산량의 3%를 점유할 것으로 예상됨.
- 타반톨고이 광산의 석탄 매장량은 약 64억 톤으로 제철용, 발전용에 필요한 고품질 석탄이 풍부하며 채굴 예상 연수는 30년 이상임.
- o 제철소, 석탄액화 플랜트 건설 등을 통한 산업 고도화로 부가가치가 높은 자원의 개발 및 판매를 추진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자원 개발의 부가가치 제고 가능성이 높음.
- 남고비지역 사인산드에 조성한 산업단지에 자원개발과 연계된 주요산업 시설을 건설하고 있음.

다. 정책성과

□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 완화

- o 몽골 정부는 중국 국영회사의 몽골 자원 개발회사 인수 시도를 계기로 2012년 5월 외국인투자법을 개정하여 광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전 정부 심의와 의회 승인을 의무화하였음.
- 몽골 정부는 광물 종류와 매장량을 기준으로 광산을 전략광산, 일반광산, 기타광산으로 분류하고, 전략광산 개발 사업의 경우에만 정부 지분 참여를 의무화하여 관리하고 있었는데, 상기 법 개정으로 광업 전반에 걸쳐 외국인 지분 제한이 설정됨.
- o 그러나 외국인 투자자의 강력한 반발 등으로 2013년 10월 정부 심의 및 의회 승인 없이도 광산에 대한 투자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음.
- 다만, 전략광산의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한 지분제한*을 유지함.
- * 정부 예산으로 탐사하여 매장량을 확정된 경우 최대 정부지분은 50%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34%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	2011	2012	2013 ^e	2014 ^f
경 상 수 지	-931	-2,759	-3,362	-2,967	-2,552
경상수지/GDP	-14.1	-31.7	-32.7	-26.3	-21.3
상 품 수 지	-172	-991	-1,552	-	-
수 출	2,908	4,816	4,381	-	-
수 입	3,080	5,807	5,933	-	-
외 환 보 유 액	2,124	2,205	3,862	2,836	2,836
총 외 채 잔 액	3,771	9,841	13,653	15,056	16,429
총외채잔액/GDP	60.4	113.0	133.1	137.1	143.9
D S R	5.2	4.0	15.0	29.4	24.9

자료: IMF, OECD.

□ 광물 생산 본격화에 따른 수출 증가로 경상수지 적자 소폭 축소 예상

- 몽골은 광물자원을 주로 수출하고 있으며 자본재 및 원유 등을 수입하고 있음. 2011년에는 광산 개발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급격히 확대되었음. 또한 광산 부문에 대한 외국인투자 증가로 과실송금이 증가하면서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9배 증가한 28억 달러를 기록함.
- 2012년에는 대규모 광산 개발로 인한 자본재 수입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서 GDP 대비 상품수지 적자 비중이 15.1%에 달함. 또한 숙련 노동력 부족에 따른 고급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 외국인 투자자의 배당 송금 증가 등으로 소득수지가 악화되어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32.7%를 기록함.
- 2013년에는 주요 광산 개발 사업의 완료로 자본재 수입이 감소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6.3%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2014년에는 오유틸고이, 타반톨고이 등 주요 광산의 생산량 증가에 따른 수출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21.3%로 전망됨.

□ GDP 대비 외채 비율과 D.S.R 모두 높은 수준

- 2010년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은 60.8%에 불과하였지만 2011년부터 시작된 대형 광산 개발 사업 및 복지 지출 확대로 정부지출이 증가하여 2011년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은 112.3%로 급격히 증가함.
- 주요 광산 개발과 인프라 확충 추진에 따른 정부 지출 확대, 자본재 및 원유 수입으로 인한 경상수지 적자 지속, 광산 개발을 위한 상업 차관 도입에 따른 외채 부담 증가로 몽골의 외채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3년도 GDP 대비 총외채 잔액은 137%이며 2014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되어 144%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 * 2011년 양허성 차관은 총외채의 71%를 차지하였으나 2012년에는 34%로 급락함.
- 정부의 무리한 개발로 재정 건전성과 외채구조가 악화되면서 2013년 외채원리금상환비율(Debt Service Ratio: D.S.R)은 29.4%로 급증하였으며, 2014년 D.S.R은 광물 생산량 증대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24.9%로 하락할 전망이나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임.

III. 정치·사회동향

1. 정치동향

□ 엘베도르지 대통령의 재선 및 인명혁명당과의 연립으로 정치적 안정성 유지

- 2013년 6월 대선에서 민주당의 엘베도르지(T.Elbegdorj) 현 대통령은 50.2%의 득표율을 확보하여 재선에 성공하였음. 2012년 총선에선 민주당은 76석 중 31석을 차지하고 야당인 몽골인민당은 25석을 획득하여 과반수의석 확보에 실패하였으나 인명혁명당과의 연정을 통해 정국 운영에 어려움이 없는 상황임.

2. 사회동향

□ 빈부격차 심화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불만 확대

- 광산 개발에 따른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어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으며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이 높음.
- CIA에 따르면, 몽골의 지니계수는 2002년 32.8에서 2008년 36.5로 상승하여 빈부격차가 상승하였음.
- 해외자금 유입 및 수입 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 특히 식품 가격의 상승은 저소득층에게 큰 타격을 주고 있음. 또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열악하여 저소득층의 신분상승 기회가 제한적임.

3. 국제관계

□ 특정 국가 의존도 완화를 위한 외교 다변화 정책 추진

- 러시아는 몽골 내 친러시아 정서를 바탕으로 몽골 내 정치적 영향력 행사, 몽골의 자원개발과 관련된 철도 개발, 에르데넛 동광산 운영, 우라늄 개발 등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몽골은 에너지 확보, 육류 수출, 중국 영향력 확대 견제 수단으로 러시아를 활용하고 있음.
- 중국 경제발전에 따른 원자재 수요와 몽골의 원자재 수출 중심 경제 구조가 상호 연계되어 있어 몽골의 대중국 의존도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몽골은 대중국 의존도 축소와 자원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여 공장 설립, 수출시장 및 운송경로 다변화 등을 시도하고 있음.
- 몽골은 캐나다, 호주 등 자원 부국과의 협력 강화 및 제3의 이웃 정책(미국, 일본 한국 등)을 본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중국 및 러시아의 영향력 최소화에 적극적임.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 중 연체 비율은 0.8%

- 2013년 9월 말 기준 OECD 회원국의 ECA 승인금액은 총 9.6억 달러(단기 1.1억 달러, 중장기 8.5억 달러), 연체금액은 730만 달러 수준임.

2. 국제시장 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D2 (2014. 3.)	C3 (2012. 7.)
OECD	5등급 (2013. 6.)	5등급 (2012. 3.)
S&P	BB- (2011.12.)	BB- (2010.11.)
Moody's	B1 (2009.10.)	B1 (2009. 6)
Fitch	B+ (2011.11.)	B+ (2010.11.)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현황

- 2013년 12월 Fitch는 2013년 7월 몽골의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하였으나, 몽골의 5대 은행인 Savings Bank의 채무불이행 선언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취약성에 따른 경제 및 재정적 불안정성 확대 가능성을 지적하였음.
- 2013년 5월 S&P는 자원 개발에 치우친 경제구조,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과도한 외채 수준을 감안하여 몽골의 신용등급을 BB-로 유지함.
- 2013년 9월 Moody's는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 낙후된 농업 경쟁력, 국제 원자재 가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등을 지적하며 몽골의 신용등급을 B+로 유지함.

□ 주요 ECA의 지원태도: 해당 내용 없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년 3월 26일(북한과는 1948년 10월 14일)
- 주요협정: 무역협정(1991년), 경제과학기술협력협정(1991년), 문화협력협정(1991년), 투자보장협정(1991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93년), 세관분야협력협정(1993년), 에너지·광물자원협력협정(1999년), 사회보장협정(2006년), 사증발급간소화협정(2012년)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몽골 교역 규모

단위: 천 달러

대 몽골	2011	2012	2013	주요품목
수 출	349,874	433,457	399,581	자동차, 건설 및 광산기계, 기호식품
수 입	60,623	53,598	26,962	금속, 비금속광물, 석탄
교역규모	410,497	487,055	426,543	

자료: 한국무역협회.

- 2011년 교역 규모는 전년 2.3억 달러에서 4.1억 달러까지 큰 폭으로 확대 되었으며 2012년에도 4.9억 달러까지 증가함. 하지만 2013년에는 수출과 수입이 각각 7.8%, 49.7% 감소함에 따라 교역규모는 4.3억 달러로 축소되었음.
- 우리나라의 대 몽골 해외직접투자는 2013년 12월 기준 총 464건, 3.48억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하고 있음.

VI. 종합 의견

- 2013년 중국의 석탄 수요 위축, 외국인 투자 감소의 영향으로 경제성장률이 11.8%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2014년에는 정부지출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축소로 경제성장률은 11.7%를 기록할 전망이다.
- 2013년에는 주요 광산 개발의 완료로 인한 자본재 수입 감소 및 광물 생산 개시에 따른 수출 증가 등으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한 26.3%로 추정됨. 2014년에는 오유틀고이, 타반톨고이 등 주요 광산의 생산량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로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은 21.3%로 전망됨.
- 2013년 6월 민주당 엘베도르지 (T. Elbegdorj)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고 인민혁명당과의 연정도 성공하여 정국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됨. 다만 높은 물가상승률, 외국자본에 대한 반감, 빈부격차 심화 등 사회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음.
- 2013년 몽골의 높은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중과 D.S.R 수준을 고려할 때 대외지급능력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세계 경기 회복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수출액 증가에 힘입어 거시경제 지표가 급속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됨.

조사역 박 두 정 (☎02-3779-5709)

E-mail: pdj@koreaexim.go.kr